

가정의 재테크 전략의 변화와 적용

여 윤 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I. 재테크에 대한 이해

1. 재테크 대두의 배경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재테크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특히 높아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62년 이후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한 이래로 평균 5%가 넘는 고도성장에 따라 재테크 대상으로서 부동산과 금융기관의 저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강했었다. 물론 시기적으로 70년대 후반 건설주 파동, 80년대 후반 '3저' 혜택에 따라 주식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대중화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IMF 시대를 맞아 금리가 낮아지고 재테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최근에는 재테크 수단별로 수익률이 조금만 변해도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2001).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참여자들은 일대 혼란과 시련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기간 유지해오던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개방화가 급진전되면서 환율, 금리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재테크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들의 재테크 행태

도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즉 금융환경이 저금리 시대로 돌입하면서 투자자들은 자산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맡겨야 할지 마땅한 예금처나 투자처를 찾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은행은 이자율이 낮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주는 재테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인구 고령화의 추세속에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전체 자산에 대한 미래설계와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의 수립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고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재테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확대와 함께 각 금융기관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재테크 전문가를 등장시키고 있다.

2. 재테크(財 tech)의 의미

재테크란 “재무활동의 하이테크놀로지화”의 약어로서 원래 기업 재무활동의 기법이 고도화되는 것을 의미했었다. 재테크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경영여건의 변화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흑자유지가 어렵게 되자 기업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www.samsungfn.com).

최근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관리전략을 총칭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재테크’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개인이나 가계의 부(富)는 ‘1차적인 부(富)’와 ‘2차적인 부(富)’의 두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개인이 직장생활이나 사업 등을 통하여 과거에 없었던 화폐를 획득하고 이러한 화폐가 단순한 교환수단을 넘어 개인이나 가계의 가장 기초적인 부를 형성하게 되며 이것을 ‘1차적인 부(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적인 부를 기반으로 하여 주식, 부동산을 통한 수익이나 예금이자 등으로 형성된 부를 ‘2차적인 부(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2차적인 부(富)’를 증가시키는 적극적인 과정과 노력을 재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www.edubox.com).

3. 저축과 투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저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가? 왜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가? 은행예금으로 대표되는 저축상품의 수익은 단순히 시간흐름에 따른 보상(time premium)

이다. 따라서 원금손실의 위험은 희박한 반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 있게 된다. 즉 물가상승에 따른 실물자산의 구매력 감소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행예금은 시중금리는 높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거나 없을 경우 이상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투자’라는 것이 그 대안으로 필요하게 된다. 즉 현재의 자산이 인플레이션으로 그 구매력이 감소되는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 그 구매력을 오히려 크게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다 (미래에셋, 2002.03a)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하지만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한 현재의 확실한 가치의 희생’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에서 기대하는 수익은 저축에서 얻는 시간흐름에 따른 보상으로 받는 수익(time premium)에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수익(risk premium)이 더해지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은 매우 클 수도 있지만 투자원금에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수익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4. 재테크의 원칙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위험을 감수한 수익성(yield)의 추구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투자자의 위험감수에 대한 대가가 수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수익성의 추구가 저축과 투자를 구별 짓게 되는 일차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중요한 재테크의 원칙으로서 안전성(safety)과 유동성(liquidity)을 들 수 있다. 안전성이란 투자를 통하여 획득된 자산의 처분에서 수익의 회수가능성까지를 포함한다. 다시말해서 투자원금과 수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유동성이란 투자자가 언제든지 현금이 필요할 때 지체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편리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 재테크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가지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 즉 현실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테크 대상들을 상대로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투자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재테크 대상이 되는 자산별로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의 정도는 각각 다르므로 투자자금을 특정자산에 집중하기 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산투자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고려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이고 그 중

투자위험 감수정도(risk tolerance)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투자자의 투자위험 감수정도내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결정된다. 흔히 투자의 시기(timing)가 투자의 성패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투자의 성패는 내가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채권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이미 결정된다고 한다. 즉 잘못된 포트폴리오 속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내고 투자시기를 잘 선택하여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불과 9%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1% 이상은 투자자가 선택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www.kfp.or.kr). 따라서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하는 것이 결국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II. 재테크 전략의 변화와 트렌드

개인이나 가계가 취하게 되는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갈 것인가? 최근 변화되고 있는 재테크 전략의 트렌드를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투자목표, 투자대상, 금융기관의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1. 투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1) 안정성 지향

IMF 경제위기를 체험하면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되었다. IMF 이전에는 투자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투자지표의 우선순위가 수익성, 유동성의 순이었으며 안전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IMF 지원금융 이후 각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하락하는 등 시장위험(market risk)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즉 기업의 어음부도율이 증가하고 부실은행의 퇴출, 합병 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관련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 여유자금이 우량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안전성 우위에 따른 금융기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IMF 이

후에는 안전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순으로 투자선택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1999).

〈투자지표의 우선순위의 변화〉

| | 수익성 | 유동성 | 안전성 |
|--------|--------|---|--------------------------|
| IMF 이전 | 최우선 고려 | 일부 고려 (자금시장 불안시 자금선확보, 주로 원화유동성 고려) | 전혀 고려치 않음 (금융기관≠공공기관) |
| IMF 이후 | 고려 | 고려 (항시 위협대비, 외환유동성도 고려) | 최우선 고려 |

삼성경제연구소(1999). p.4

2) 유동성 지향

개인이나 가계는 IMF를 계기로 하여 실직이나 감봉 등을 겪으면서 유동성 부족을 몸소 체험하면서 투자에 대한 태도가 보다 유동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즉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투자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거나 또는 자산의 보유가치보다는 유동성과 수익가치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유동성 확대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산유동화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등장, 뮤추얼펀드의 상장 등을 비롯하여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비롯한 자산유동화 증권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확대현상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제거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멸되지 않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1999).

2. 투자목표의 변화

투자자들의 투자동기와 투자목표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주택마련, 자녀교육과 결혼, 노후대책 등이 가장 중요한 저축목표나 투자목표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란 현재의 경제적 희생을 통해서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를 이해할 때 투자의 목표는 단순히 결혼자금 마련과 자녀교육 준비 또는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즉 기본적인 욕구(needs)가 충족되어진 상태에서 보다 차원 높은 욕망(wants)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적 안전감(financial security)의 달성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재정적 안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정적 문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재정관련 문제에 대한 불신이나, 걱정, 두려움 등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투자는 삶을 보다 여유롭게 해주고 이러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이라고 가능케 해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미래의 재정적 독립을 통한 재정적 안전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곧 투자이고 이것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3. 투자대상의 변화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는 크게 주식과 채권, 부동산,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재테크 수단을 관련시켜 보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부동산이 크게 부각되다가 채권 ==> 주식 ==> 금융상품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이 정형화된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의 발전단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경제시스템이 안정됨에 따라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 등 재테크 수단별로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비슷해진다. 따라서 특별히 어떤 재테크 수단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국제금융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적은 국민들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미국 경제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고 재테크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2001; 삼성증권 2002.02).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시스템이나 발전단계가 선진 수준에 도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부각되고 있는 투자대상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될 투자대상을 크게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시장의 성장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주식시장과 같은 직접금융

시장이 은행의 예금시장과 대출시장을 대신하여 시중자금흐름을 주도하는 부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의하면 1997년 개인의 금융자산 운용액 중 예금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 23% 였으나 1998-1999년 상반기 중에는 예금 비중이 46%로 줄고 유가증권 비중이 54%로 높아졌다고 한다 (강호병, 2000). 또한 우량 기업들의 자본금 대비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단지 위험성이 큰 투기적 행위가 아닌 자산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제의 중심 축에 뛰어들어 이들 자산이 축적되면서 가계자산의 구성비를 바꾸어 나갔다. 1990년에 전체 가계자산 중 주식투자비중이 13%였는데 2000년에는 31%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예금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나치게 높았었다. 가계 총자산 중 실물자산이 66%로 매우 높으며 나머지 금융자산이 34%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금융자산 내에서도 예금이 61.2%로 미국의 11.4%보다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금융자산 내에 주식비중은 6.8%이다 (미래에셋증권, 2002.01b).

그러나 향후 전개될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후인 55년부터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의 중심 축에 이미 뛰어들었고 이제 이들 세대가 자산을 축적하는 나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들 세대들은 토지보다는 cash flow가 존재하는 상가를 선호하고 예금보다는 제2금융권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금융자산 중 주식의 투자비중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들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경상 GDP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G7 국가들의 평균치인 1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 사실은 주식의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강호병, 2000).

또한 21세기에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주식이나 주식관련상품이 고수익 투자자산으로서 가장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채비율과 경쟁력을 지닌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성장세는 속도를 더해갈 것이다.

2) 간접투자상품의 혁명

간접투자란 직접투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에 가입하여 투자전문가에게 돈의 운용을 맡기는 투자를 말한다. 간접투자상품으로는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뮤추얼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 등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증권저축도 간접투자상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은 각계의 투자 전문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투자를 할 때보다 정보나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직접투자를 통해서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기란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직접투자자들의 매매형태는 이익을 볼 때는 적게, 손실을 입을 때는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의 한계, 이익을 빨리 챙기려는 조급증 등으로 장기보유를 못하고 충분히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투자형태, 그리고 미수매수를 통한 손실의 확대 등으로 그 평균 수익률이 큰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투자자금의 한계로 여러 종목의 분산투자보다는 특정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잦은 교체매매로는 대세 상승 추세를 맞이 했을 때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2002.03b). 따라서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최근에는 언제든지 손쉽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펀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즉 중도환매수수료가 전혀 없고 중도 자금인출이 100% 자유로운 펀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21세기에는 투자펀드의 천국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뮤추얼펀드(Mutual Fund)이다. 뮤추얼펀드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주주(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뮤추얼펀드도 투자신탁상품이라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동일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주주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권한이 많고 펀드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뮤추얼펀드는 98년 말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문적인 펀드매니저에 의한 운영, 투명한 정보공개, 탁월한 수익률 등 종래의 수익증권 형태의 투자신탁상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점이 투자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면서 도입 초기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강호병, 2000). 특히 수시로 뮤추얼펀드에 출자하고 또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과 함께 뮤추얼펀드는 보다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3) 재테크 대상으로서의 주택의 의미 변화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과거로부터 대표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이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자바람을 타고 주택은 가장 확실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1990년에서 1999년 동안 재테크 수단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채권 수익률이 연 14%, 주가상승률 연 3.3%, 지가 상승률 연 1.05%로 다른 투자수단들에 비해 부동산 재테크는 수익률이 별로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ww.kfp.or.kr). 주택은 이제 재테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용가치를 가지는 생활의 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가족의 요구에 맞게 냉장고 세탁기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교체해 가듯이 주택 또한 가계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재화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부동산 간접투자의 시대

IMF 이후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의 증권화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증권화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산유동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비롯하여 주택저당증권(MBS),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이 현재의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부동산이 투자수단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거래규모가 커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분할 매매가 되지 않아 투자전환이나 유동자금 필요시 한계점이 많았으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본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게 해 주는 수단이 바로 부동산의 증권화라고 할 수 있다 (김성식, 2000).

부동산 증권화를 계기로 개인투자자의 부동산 투자패턴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유동성 제약과 위험부담이 큰 부동산 직접투자는 줄어들고 유동성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간접투자가 확산될 것이다. 과거 주택투자는 임대료 같은 투자수익률 개념보다 시세 차익에 따른 자본이득을 목표로 한 막연한 보유의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시장의 성숙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투자수익률의 개념이 부동산투자에서도 확산될 것이다. 일단 매입 후 시세차익(capital gain) 기대를 바탕으로 한 투자방식이 퇴조하고 예금이나 주식 등 대체투자수익률과 비교하여 수익률(income gain)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식, 2000). 부동산 간접투자는 부동산 투자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위험을 분산하여 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금융기법으로 전세계적인 중요한 투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4. 금융기관의 변화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고객중심 경영’ 또는 ‘고객만족경영’이라는 개념이 기업운영의 최대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고객만족 경영이란 고객지향적 사고가 기업경영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는 경영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권에도 반영되어 보다 차원 높은 고객중심경영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프라이빗 बैं킹이나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등은 이러한 차원에서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고객지향 :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금융기관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객의 투자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상품개발과 전문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접투자, 간접투자, 주식매매 중개업무 등에 이르는 고객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차원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영업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꾸준한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여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결국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더욱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객만족이 고객감동으로 이어지면 고객은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게 된다. 이렇게 쌓은 신뢰가 장기적인 영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과거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고객만족 지향으로, 다시 고객감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영업활동의 초점을 이동시켜가고 있다.

2)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대두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투자자문과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가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금융기관들은 이미 자산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와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다. 투자자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춘 최선의 방법을 찾아 컨설팅을 해주고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던 창구업무를 ATM이나 PC와 전화를 이용한 홈뱅킹, 텔레뱅킹 시스템 등으로 대체하고 영업장에서는 재테크를 위한 컨설팅이나 투자자문, 투자상담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전문화된 서비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VIP 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이러한 운영전략의 변화는 고객에게는 보다 값싼 수수료와 짧은 대기시간, 그리고 하루 중 언제 어디서나 편한 시간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 측에게도 인건비와 공간 절약을 통한 점포 임대료 등의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III. 재테크 전략의 적용 : 재테크 성공요인

개인투자자가 현실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테크의 일반적인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 투자자금의 성격을 파악한다.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이 향후 무엇에 사용할 자금인가를 파악하고 자금의 용도에 따라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투자자들이 원금의 손실을 원하지는 않는 것은 비슷하지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정도(risk tolerance)는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노후대책자금이나 단기간에 꼭 써야 하는데 잠시 여유 있는 자금 등은 위험성이 아주 낮은 것에 투자해야 한다. 순수한 의미의 여유자금을 위험성이 높은 투자수단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신의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투자를 시작하라. 목표수익률 없이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자

들은 그 반대의 경우 손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투자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정도 내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목표수익률을 정해야 한다. 목표수익률의 결정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투자기간이다. 즉 투자자금을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목표수익률의 달성을 감안하여 투자기간을 설정한다. 투자기간 중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져서 환매할 경우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자금을 분산 투자하듯이 투자기간별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갑작스런 자금 소요, 또는 더 좋은 투자기회의 발생, 수익률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 투자나 저축보다 부채의 청산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도록 한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어리석음을 종종 범하게 된다. 이것은 더 큰 것을 희생해서 더 작은 것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 등이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투자는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후수익률(after-tax return)이 높은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특히 최근의 저금리시대에서는 예금금리가 5% 내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같은 이자율이라도 세금이 면제되거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세후수익률면에서 유리한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절세상품을 활용한다면 2-3% 정도의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
-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은행권의 정기예금의 비중을 줄인다. 현재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로는 인플레이션 헷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한도 내에서 가장 적합한 간접투자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다.
-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한다. 즉 유동성의 확보는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향후 더 좋은 투자수단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 끊임없이 금융지식을 쌓아서 정보편차가 날 수 있는 경제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경제안목을 기르는 수단인 국가기관이나 전문 전망기관을 통한 정보의 수집은 이들 기관의 경제전망 발표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편차가 나는 경제안목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다. 앞으로의 재테크 상황은 과거와는 매우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의 대두,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잉여자금과 여유자금의 증가 등 금융환경의 다변화와 참여 기회의 보편화는 재테크를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테크는 경제상황에 민감하고 관련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스스로 첨단정보를 이용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될 것이다.

- 재테크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를 고용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재테크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재테크의 분야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도 절실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투자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산관리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이 하나의 확정부 고금리상품을 이용한 자산증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포함한 효율적인 분산투자전략과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테크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향후 재테크는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신상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즉 변화를 예감하고 미리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재테크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호병 (2000.01.05). 21세기 한국 금융의 6대 트렌드. LG주간경제 552호.
- 김성민, 길재욱, 김현수 (1999). 생활재무관리. 경문사.
- 김성식 (2000.03.08).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LG주간경제 561호.
- 미래에셋증권 (2002.01a). 누구나 투자자가 될 수는 없다. 미래에셋.
- 미래에셋증권 (2002.01b). 2002년 주식투자환경과 전략. 미래에셋.
- 미래에셋증권 (2002.03a). 저축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미래에셋.
- 미래에셋증권 (2002.03b).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펀드활용. 미래에셋.
- 삼성증권 (2002.02). 환테크를 잘 하려면. Fn Honors Club. Samsung Investment Guide v.31.

p.24.

안승철, 정영숙, 배미경 (2002). 신투자와 보험. 도서출판 신정.

한경비즈니스 (2001.11.19). '정보편차' 따라 재테크 승부 갈린다. 한경비즈니스 No.311.

[참고 인터넷 사이트]

www.edubox.com

fn.mk.co.kr

www.kfp.or.kr

www.mk.co.kr

www.neomoney.co.kr

www.lgeri.com

www.samsungfn.com